111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삼위일체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10. 전능왕 오셔서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과 들의 과실수들은 벌써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 늘 바쁘고 분주하게는 살지만 정작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으셨던 주님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 흉악한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명이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주님, 깊이 병들고 고장 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57:15 …… 인도자

▲ 교 독 문 …… 137. 삼위일체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박범희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187. 비둘기같이 온유한 …… 다 함께

▲ 성경봉독 …… 고후 13:11~13 …… I. 인도자
II. 김명하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여겨주심으로 …… I. 마중물 찬양대
II.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II. 청파찬양대

말 씀 ····· **은혜, 사랑, 사귐**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420. 너 성결키 위해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배제와 혐오와 분열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기운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지향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삼위일체주일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다 분열을 자초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사랑과 사귐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환경부 소개**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청파교회는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해 예배, 교육, 봉사, 운영, 친교 등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실천 노력 뿐만 아니라, 연대를 통한 녹색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청파교회의 여러 부서 중 하나인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생명밥상 빈 그릇 실천운동』

2000년 전교인 수양회의 생활수칙 중 하나였던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청파교인들의 일상 속 실천운동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생명밥상 빈 그릇 실천운동’입니다. 피조세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식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비우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청파 햇빛 발전소』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햇빛발전소는 2008년 교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청파교회 지붕에 세워졌습니다. 매년 약 3,600k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돕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모종나눔』

매해 부활절 아침에는 달걀 대신 모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종에는 부활의 의미 뿐 아니라 생명 돌봄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 동안 토마토, 토종 딸기, 토종 콩과 같이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모종을 나누기도 했고, 야생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을 주는 공기정화 식물을 나누었습니다.

『생산지 방문』

파종과 수확 절기에 맞추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감리교 농촌 교회 및 생산 농가들을 방문합니다. 두부, 감자, 고구마, 복숭아, 사과, 옥수수, 매실, 마늘 등 ‘서로살림농도생협’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살펴보고, 직접 파종과 수확 활동에 참여하면서 만물이 서로를 도울 때 비로소 생겨나는 생명과 창조 원리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 운영』

‘서로살림농도생협’은 감리교 소농 중심의 ‘공급자’와 생협 활동에 직접 참여

하는 '소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돈이 아닌 생명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용품을 판매하는 교회 지하의 청파생협은 이윤을 남기지 않으며, 판매 봉사자들은 무보수 봉사자입니다.

『독서 토론 & 환경 세미나』

환경부는 몸으로 하는 활동 외에도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돌아보고 배우기 위해 다양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전교인 환경세미나를 통해 환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태감수성 산책』

가깝거나 먼 산 혹은 들로 생태감수성 산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감탄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각각의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오롯이 제 몫을 누리며 살도록 보살피고, 조정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경외감'이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 앞으로 데려온 까닭은 그가 '경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한 유대인 랍비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 알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구는 광기에 사로잡힌 한 시인의 과장법이 아니라, 눈 뜬 자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임의로 다룰 수 없다. 강과 산, 대기와 햇빛, 동물과 식물, 그리고 미생물조차 각자의 역할을 다 함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모두 창조의 일꾼들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미와 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종교이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의 삶에 대한 강조점은 시대마다 달랐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절실한 덕목은 무엇일까? '절제'가 아닐까? 환경적자 - 기초 자원의 잠식, 수산자원의 과잉 남획, 생태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축산 관행, 삼림 파괴, 바다와 대기 오염 등-를 쌓아온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세상은 지금 신음 중이다.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들은, 자본주의 논리와 질서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 김기석 목사님의 글 중에서

환경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경부 총무 박재영 집사를 찾아주세요.

폐병장이 내 사내

- 허수경

그 사내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 몰골만 겨우 사람꼴 갖춰
밤 어두운 길에서 만났더라면 지레 도망질이라도 쳤을 터이지만
눈매만은 미친 듯 타오르는 유월 숲속 같아
내라도 턱하니 피기침 늑막에 차오르는 물 거두어 주고 싶었네
산 가시내 되어 독오른 뱀을 잡고
백정집 칼잽이 되어 개를 잡아
청솔가지 분질러 진국으로만 고아다가 후 후 불며 먹이고 싶었네
저 미친 듯 타오르는 눈빛을 재워
선한 물같이 맛깔 데인 잎차같이 눕히고 싶었네
끝내 일어서게 하고 싶었네
그 사내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
내 할미 어미가 대처에서 돌아온 지친 남정들 머리맡 지킬 때
허벅살 선지피라도 다투어 먹인 것처럼
어디 내 사내 뿐이랴.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도윤 김성순 김영락 김영미 김용길 최영혜 김지은 김지헌 김지현b
김충실 조아라 김희선 박미희 박병구 박숙미 박해남 박해숙 배강우 백성래
서동우 서수진 소광섭 김숙희 송남필 송병찬 신능수 심해성 안지민 오은영
유명호 지성진 윤수연 이미휘 이부곤 이윤범 나지선 이재삼 전정현 이한림
김명희a이행진 이호원 임찬양 임찬양 장동훈 정은선 장의림 장현희 정연희
정영례 정윤성 서효진 정재기 조병무 송양진 조호진 최승주 최영민 이상미
최옥자 최윤선 최윤희 한상경 한상균 허호범 박성실 현진 홍복선

감사헌금

강혜린 구혜린 김경미 김일재 김재영 김재흥 최희영 김태정 김혜영 박기태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박지혜 박창운 허정윤 방대권 우미나 방신혁
방종미 백성래 손숙경 신기호 안정숙 유명호 지성진 이광석 이경희 이미정
이상도 이재문 임종수 임혜진 전근우 전마리아 정연경 정태근 채일석 최병민
서지연 최혜정 표명화 허명선 무명7

생일감사헌금

김일랑 소병화 이인웅 조순덕

녹색꿈헌금

권대성 김영희 김향자 최가윤 무명1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쉼)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에는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2. **사과나무 분양** : 음성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9월부터 5회 택배 발송 (5kg 5상자와 사과즙 1상자- 13만 5천원) 문의: 청파교회생협
3. **신앙실천** : 내일(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입니다. 황폐해지는 자연을 생각하면서 절전을 생활화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선교 후원 보고 : 주중에 영월에 있는 내리교회의 낙후된 교회 바닥과 천장 공사비용 1,300만원을 후원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사 60:17~22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장영숙	곽상준	김재흥

6월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순 김해선 정현숙 이완구		
	2부 헌금위원	안홍숙 황현성		

오늘 식당 봉사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임고은 박준민 김정우		
다음주식당봉사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4남선교회(35-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2여선교회(61-65세)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